

文대통령,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 지시

빛가람 올 2200명 채용...지역인재 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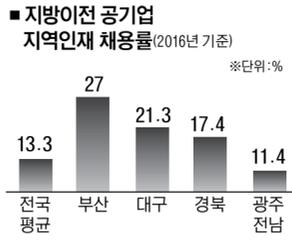
광주·전남 비율 11% 하위권
한전·농촌경제연 10% 밀돌아
올해 30% 채울까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밝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30% 이상'은 지역인재 채용 발인은 그동안 12.31%에 머물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호남인재 채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3년간 전국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률은 평균 12.0%에 그쳤다.

이들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8693명 가운데 10.2%인 888명이, 2015년에는 8934명 중 12.4%인 1109명이 지역인재였다. 지난해에는 1만18명 가운데 지역인재 수가 1333명으로 13.3%였다.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포인트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전남도 지난해에는 전국 평



군에 못 미치는 11.4%에 불과했다. 2014년 11.2%에서 2015년 14.2%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의 공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공공기업은 7.3%(797명 중 58명)로 가장 낮았고 충북(8.5%·318명 중 27명) 등도 하위권이였다.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고용한 지역인재는 모두 75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들이 이전한 후 채용한 전체 6158명의 12.31%에 해당한다.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10% 미만인 곳은 한국전력공사(9.02%)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4.44%)으로 나타났다.

3년간 신규 채용인원 3226명 중 291명을 지역 대학 및 고교 출신으로 채용한 한전은 지난 2014년 7.0%에서 2015년 10.8%로 높아졌다가 다시 2016년 8.8%로 떨어졌다.

전력 분야 공공기업 중에서는 한전 KPS(주)가 842명 가운데 142명을 뽑아 16.86%로 가장 높았다. 한국전력거래소는 61명 중 11명(16.18%), 한전 KDN(주)이 441명 중 56명(12.70%)을 각각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한국농어촌공사사의 경우 923명 가운데 152명으로 16.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168명 가운데 28명으로 17.07%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6명 가운데 18명(10.23%),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9명 가운데 8명(11.59%)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채용 규모가 적은 농림수산물식품기술개발사업은 17.65%(17명 중 3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3.04%(46명 중 6명) 등 1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기관은 지난 2014년 1765명 가운데 198명(11.2%), 2015년 2077명 가운데 296명(14.2%), 2016년 2316명 가운데 264명(11.4%) 등의 지역인재 채용 추이를 보였다.

한편 올해에도 빛가람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인력채용 예상 규모는 2207명을 채용한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은 사무·송배전·통신·도복·건축 등에서 1200명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송배전 직종이 568명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그나마 올해 한국전력공사 등 지역인재를 15% 이상 채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들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인색한 실정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콘텐츠로 '빛가람 문화특구' 개발

콘텐츠진흥원·나주시 협약

유지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박상우),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지난 20일 '콘텐츠기반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협약은 한전진의 '지역특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나주시의 문화·관광·역사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지역개발과 관광에 접목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전진은 콘텐츠 기획·육성자문 및 지원 역할을 맡는다. LH는 콘텐츠 공동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나주시는 콘텐츠 적용에 필요한 문화 시설물 제공 및 인허가, 설치된 시설물·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박상우), 나주시(시장 강인규)와 지난 20일 '콘텐츠기반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나주시의 문화·관광·역사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지역개발과 관광에 접목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전진은 콘텐츠 기획·육성자문 및 지원 역할을 맡는다. LH는 콘텐츠 공동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나주시는 콘텐츠 적용에 필요한 문화 시설물 제공 및 인허가, 설치된 시설물·프로그램에 대한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전, 전력설비 점검 드론 시연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기대



전력설비 진단용 자율비행 드론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2일 나주혁신단지에서 정부·산업계·노동계 등 200여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비행 드론 설비진단기술'과 'Big-Data 기반의 설비상태 자동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전력선 비접촉식 원격작업 공법'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자율비행드론 설비진단기술은 핵심기술인 로봇 및 광학 기술을 접목해, 차량진입이 어려운 산악지, 하천횡단개소 또는 지상에서 점검이 곤란한 전력설비 상부를 GPS 경로를 따라 자율비행하면서 점검하는 기술이다.

설비상태 자동분석기법은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와 Machine-Learning 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로 진단장비 일체를 차량에 탑재해 손쉽게 전력설비를 진단하고, 자동으로 고장점을 찾아내 시간과 비용을 최대 10배까지 절감할 수 있다. 중동, 동남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한전은 자체 활용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력설비를 유지보수 할 때 기존엔 직접활선공법을 활용하였으나, 작년 6월부터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 하는 비접촉식 간접활선공법으로의 정책 전환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전국 작업현장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감전 등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한전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전 박성철 영업본부장은 "정부 역할 정책인 4차 산업혁명 구현에 있어 세계최고의 전력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이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적 요구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DN은 지난 20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청림힐링 콘서트'를 열고 지역민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 제공>

'빛가람청림문화제' 한전KDN 콘서트 개최

한전KDN은 지난 20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청림힐링 콘서트'를 열고 지역민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악가들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남성 5인조 그룹 '컨템포디보'가 출연해 가곡과 뮤지컬,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

한전KDN은 지난 20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청림힐링 콘서트'를 열고 지역민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악가들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남성 5인조 그룹 '컨템포디보'가 출연해 가곡과 뮤지컬, 오페라 아리아,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마른장마 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농어촌공사 비상대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최근 가뭄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내기가 완료됨에 따라 '마른장마'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평균 저수율은 39%에 머물고 있는데, 7월 강수량도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 전남 남부 등 가뭄이 극심한 지역은 인공의 담수호, 하천으로부터 관로를 연결해 저수지에 물을 보충하거나 농경지에 직접 급수에 나섰다.

충남 서산과 보령의 간척지에서는 염해에 대응해 재이양에 필요한 예비뽕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비상펌프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정을 개발하는 등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논에서 흘러나온 퇴수를 다시 끌어

지난 21일 정승(가운데) 농어촌공사 사장이 경남 하동의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다 쓰고 정화한 하수를 활용하는 등 수자원의 재활용도 벌이는 중이다.

정승 사장은 "마른장마에도 벼가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4년째 봄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

본격 반려견 양육 권장방송

개밥주는 남자 시즌2